新年隨想

“부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유자효
(사)한국시인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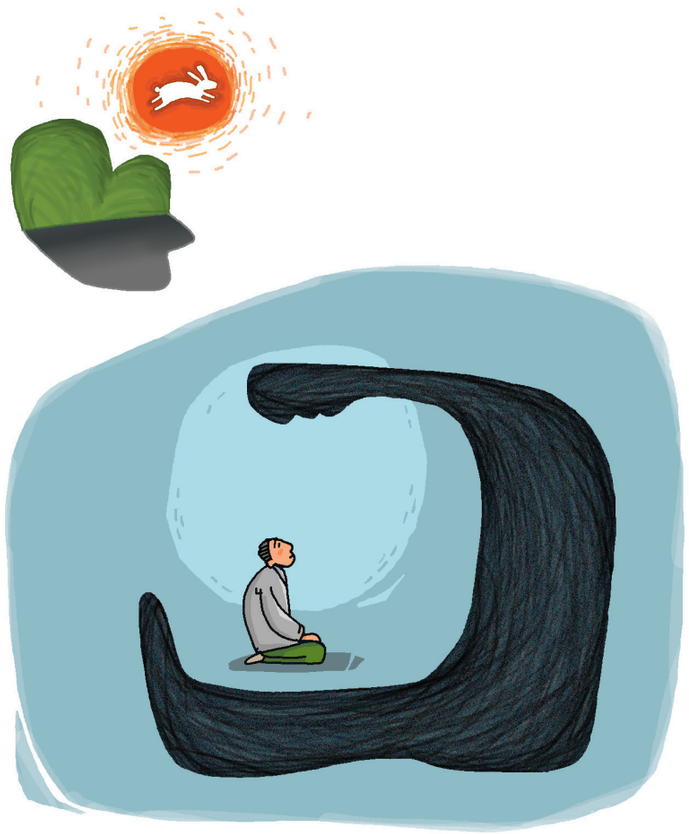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계묘년 새해에는 부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그려봅니다
환난 시대, 淨土 만드는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참으로 무상하여 스님께서 가신 지 5년이 되어 갑니다. 불쑥 전화를 하시고는 “지금 뭐하시능교?” “그냥 있습니다.” “퍼뜩 오이소” 하시던 스님께서 어찌 제 꿈결에도 한 번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스님께서 완전한 적멸(寂滅)에 드셨음을 그래서 깨닫습니다. “죽으면 아무 것도 없는 것이야.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조사(祖師) 스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몰라”하시던 그 적멸입니다. 완전한 무(無)의 경지에 드신 것이지요.

스님은 그래서 평안하시겠지만 살아 있는 사람들의 세상에 스님이 남기신 자취는 날로 커져갑니다. 문단에서는 스님의 문학을 연구하는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고, 매달 시 낭송을 하는 모임도 생겼습니다.

서울에 오실 때면 자주 들렸던 출판사에서는 스님께서 창간하신 잡지의 우수 논문 게재자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스님께서 즐겨 드시던 칼국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모두 스님을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스님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움에 젖기도 했지요. 이렇게 저는 아직 스님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스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 세상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국내에서는 핼러윈데이에 이태원에서 159명의 사람이 깔려 죽는 초현실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도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요. 북한의 핵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어려움에 부딪치면 ‘부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해답이 나오지요.

부처님께서는 왕자님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 출가하셨고,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신 분입니다. 전쟁으로 동족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겪으신 분입니다. 완전한 인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내외적 상황의 극단을 극복하신 분이었기에 우리가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셨습니다.

우선 새해는 세계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공하여 전쟁에 의한 죽음이 일상사가 되는 일이 없기를,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거리를 방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잦았던 발칸반도에는 적의 존재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해변으로 돌출한 지역은 성벽을 쌓아 도시를 거북등처럼 에워쌌고,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은 산등성이를 따라 성을 쌓았습니다. 그 능선이 마치 칼처럼 날카로운 지역도 남김없이 성을 쌓았습니다. 적의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으면 사람이 올라가기도 어려운 능선 따라 돌로서 철벽 방어선을 구축했겠습니까?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로서는 드물게 70년 평화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혹여 평화의 신기루에 현혹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동해로, 서해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을 앞에 두고도 방공훈련 한 번 없는 우리의 자세가 오히려 무섭습니다.

그리고 새해는 인류가 팬데믹에서 풀려났으면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3년 우리가 겪었던 상황은 조상들이 일찍이 겪었던 페스트나 스페인 독감과 진배없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병으로 고통을 겪는 가족도 간호하지 못하고, 장례도 행정 절차에 따라 치러야 하는 비극을 다시는 겪지 말았으면 합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음을, 늘 치러야 하는 일상사임을 뼈저리게 겪었던 나날. 이제는 그 고통에서 놓여났으면 합니다.

이렇게 병이 무서운데,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하는 죽음도 안타까운데, 새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우리 사회의 어떤 요소들이 자살이라는 막다른 길로 사람들을 몰아갑니까? 이런 요인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사회 보장 제도를 세심하게 손보고 구멍 난 곳은 메꿔나가야 합니다. 남들이, 이웃이 모르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회가 무섭습니다. 특히 사선을 넘어온 탈북민들의 죽음은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원시적인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새해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사랑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세계 출산율 꼴찌가 되었습니까?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어른들이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에게는 ‘아이는 온 동네가 키운다’ 는 두레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는 온 나라가 키운다’ 는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동네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동네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화급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 우리의 2세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해는 그런 나라 만들기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속 질주의 시대에, 마음을 잃지나 않은지 걱정합니다. 마음을 잃은 텅 빈 육신만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지나 않은지요. 새해는 마음 찾기, 마음 챙기기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꽉 잡고 있어야 내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며, 가장 어려운 것이 마음 다스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한마디로 하면 ‘마음’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나의 마음을 찾아 위로하고 끌어안아야 하겠습니다. 남극의 혹한을 끌어안기로 견뎌 나가는 황제펭귄들처럼….

새해는 부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겪으신 부처님, 그 고통을 극복하고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최상의 경지를 보여주신 부처님. 새해는 우리가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살아가기를 꿈결처럼 그려봅니다. 거기에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를 극락정토로 만드는 비밀의 열쇠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社 說

토끼처럼 도약하는 한국불교 기대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한국불교는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한 해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당장 2월부터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장장 43일동안 진행되며 조계종의 역점 사업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상월결사 순례의 ‘화룡점정’ 이 될 인도순례는 오는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43일간 진행된다. 순례코스는 인도, 네팔의 부처님 탄생부터 열반지까지 부처님 8대성지를 순례하는 길이며 그동안의 상월결사 순례와 마찬가지로 길 위에서 먹고 자고 행선하며 부처님처럼 전법수행을 펼친다.

43일간의 대장정에는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조계종이 추진하는 대형 문화교류행사들이 예정돼 있으며, 동국대에서는 인도 나란다대학과 학술대회 및 MOU 체결도 진행한다. 한국불교 역량이 집중되는 것이다. 이 같은 동력들을 한국불교 중흥으로 이어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조계종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의 슬로건이었던 ‘천년을 세우다’ 를 ‘과거 천년, 미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로 확장됐다. ‘과거 천년’ 은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를, ‘미래 천년’ 은 명상센터 건립과 미래세대 포교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과제를 말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1월 11일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

토끼는 예로부터 번영을 상징한다. 한국불교가 추진하는 여러 불사들이 원만성취돼 불교중흥의 기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계묘년, 한국불교의 도약과 굴기를 기대한다.

MZ세대 포교, 공감대 형성부터

‘세상 힙한’ 청년과 예술의 성지 서울 홍대 인근에 게스트하우스를 겸한 명상센터 ‘저스트비 템플’ 을 개원한 준한 스님, 대학생 포교에 뛰어든 진짜 대학생 스님들의 모임 ‘칠불회’, 청년들이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느끼길 바라는 서원으로 ‘감사일기’ 책을 펴낸 한산 스님, 장병들과 새벽 보초를 함께하는 ‘꽃스님 군종장교 범정 스님.

현대불교신문이 2023년 신년에 만난 MZ세대 스님들이다. 청년세대 포교는 동년배인 본인들에게 맡겨달라고 나선 MZ세대 스님들은 “일상생활에서 동년배 간의 공감대 형성”을 포교의 중요한 포인트로 꼽았다.

머리 깎은 스님이 승복을 입고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포교가 된다는 것이다. 스님들은 처음 호기롭게 포교하겠다고 나설 때만해도, 출가할 때 부처님처럼 깨달을 것이라 착각했던 것처럼 자신감에 부풀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큰 착각이었다고 말했다.

매일 정해진 시간, 누가 오지 않더라도 가사장삼 수하고 예불을 드리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활동에 동참시키려 하는 것보다 먼저 말 걸고 스스로 찾아 온 사람을 반기면 된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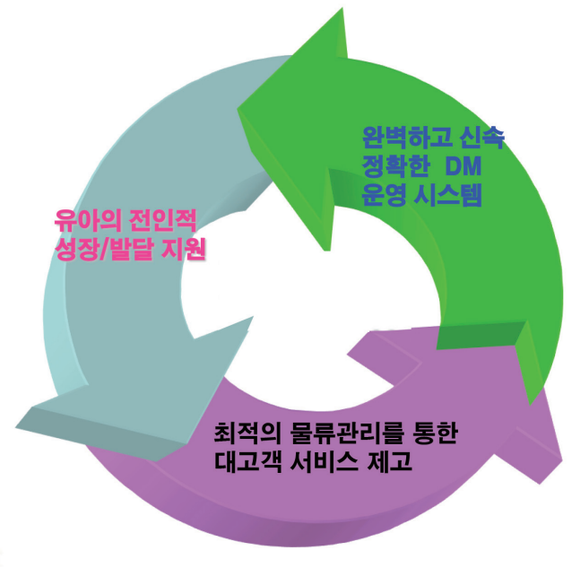
실제 MZ세대들은 합리성을 주장하고 탈권위, 개인의식, 자기주장이 강하다고 말한다. 환경과 평등과 공정, 사회 정의 등에도 관심이 많다. 환경, 건강, 화합 등 MZ세대가 일상생활에서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들은 실제 불교가 지닌 사상과 적절하게 맞닿아 있다. MZ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MZ세대는 불교에 열광할 것이다.

새해에는 많은 MZ세대들이 일상에서 불교를 알아가고, 또 스며들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국내 최초 DM 서비스 제공, 44년 경험의 전문 기업 덕성기획(주)
덕성기획㈜는 ㈜노벨과 개미의 교육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DM 및 물류, 유아교육 사업을 고객의 입장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임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덕성기획(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19번길 87
TEL : (02)2615-0183(대) FAX : (02)2689-3139 www.duksungdm.co.kr
▶ DM사업본부 ▶ 물류사업본부 ▶ 유아교육사업본부(노벨과 개미)

유아교육사업본부 덕성기획(주) 노벨과 개미+

미래를 여는 (주)덕성C&B
직배사업부 :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직배서비스 운영
TEL : (02)2615-3296(대) FAX : (02)666-3139